

시급 '짚뭉' 시간 '급증'... 고용 불안 고착화

■2016년 아르바이트 소득지수 분석 결과

3분기 주 22.5시간 근로... 전년비 0.4시간 늘어

광주 월 평균 소득 70만7477원...25.8% 증가

대학생 최(24)모씨는 학비와 용돈 마련을 위해 대학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기간이 지날 수록 시급도 높아지고 일도 편해졌지만 학비도 오르고 제값하는 물기도 뛰워 원하는 비용을 벌기위해선 그만큼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했다. 학업과 스포에 지장이 있어 그만 둘까도 생각했지만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난감하다.

광주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의 월평균 소득이 70만원대를 넘어섰지만 당달아 근로시간도 증가하면서 노동의 질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전국이 최근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전국 남녀 3590명의 월평균 소득과 근무시간 등을 분석 발표한 '2016 3분기 알바소득지수'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전국 아르바이트생 월평균 소득은 70만4123원으로 지난해 3분기(67만8465원)보다 약 3.8% 증가했다.

전년 동기 증가율인 2.4%보다는 높지만 올해 2분기 소득 증가율인 5.2%에 비해서는 소폭 꺾였다.

업종별로는 가사·교육 업종의 소득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3분기보다 18.7% 증가한 66만5517원을 기록했다. 사·회계(99만533원, 10.6% 증가), 서방·주방(59만1460원, 6.4% 증가) 직종의 소득 증가율도 눈에 띄었다. 반면 생산·기능 직종의 평균 소득은 8% 이상 줄어 대조를 이뤘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70만7477원으로 25.8%나 증가 월 평균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은 70만198원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인천(71만5209원)과 대구(63만5747원)는 각각 4.4%, 3.3% 감소했다.

하지만 문제는 시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오르면서 근로시간은 빠르게 증가해 불안정한 고용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평균 시급은 721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060원) 보다 155원(2.2%) 높아지지만, 전체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2.5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22.1시간) 0.4시간이나 증가했다. 올해 2분기와 비교하면 시급은 175원, 평균 근로시간은 0.8시간 정도 늘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3분기에 시급과 근로시간이 늘어난 데는 중·장년층이 알바 시장에 많이 진출한 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의 증가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의 고용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자영업자 급증과 함께 아르바이트인 초단기 근로자는 5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올해 3분기 기준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17시간인 취업자는 134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1000명 증가했다. 154만명이었던 2011년 3분기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나타났다. 올 3분기 전체 취업자가 1.2% 증가하는 동안 초단기 근로자는 7.2% 증가했다. 2분기에도 초

단기 근로자는 4.4% 늘면서 전체 취업자(1.1%)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장려한 효과라는 분석과 함께, 경기 침체로 비자발적인 경우가 늘면서 근로 조건이 점점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취업준비생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이 알바 시장에 본격 유입되고 있다"며 "수치상으로는 월평균 소득이 늘고 있지만 근로시간 증가와 비정규직화 등 노동의 질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어 S3 체험 지난 5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2016 투르 드 프랑스 레파 코리아 빌리지'에 마련된 체험존 앞에서 '기어 S3' 체험단이 '기어 S3'를 착용하고 있다. <상성전자 제공>

LG이노텍, 세플러 그룹 '최우수 협력사' 선정

LG이노텍은 글로벌 자동차 부품·베어링 전문 기업인 세플러 오토모티브그룹이 선정한 '최우수 협력사'로 뽑혔다고 6일 밝혔다.

최우수 협력사는 전세계 5000여 개 협력사 중 자동차 부품 사업 전반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10개 업체만 선정된다. 세플러의 지난해 매출은 약 16조7000억원(132억유로), 협력사로부터 사들이는 부품소재는 약 9조8000억원(78억유로)에 이른다.

LG이노텍은 세플러와 2014년 차량 연

료 정밀제어용 부품 개발을 시작, 최근 차량용 모터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독일 콘텐넬 오토모티브그룹의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됐으며 지난 7월에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GM)로부터 품질 우수상을 받았다.

LG이노텍 차량부품사업은 2007년 차량용 모터 생산을 시작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차량부품 매출은 3분기 누적 59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증가했다. /연합뉴스

대부 빚독촉 하루 2번까지만 허용

앞으로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을 통한 빚 독촉을 하루 2번까지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지만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하루 최대 2차례만 채무자와 접촉할 수 있다. 또 채권 추심에 들어가기 3

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련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추심을 금지하는 방안은 대부업체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추심하지 않은 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간 일부 대부업체는 이런 채권을 잔값에 사들인 뒤 "소액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주겠다"며 채무자를 회유해왔다. /연합뉴스

한전 1조3천억원 수출 상담

빅스포 폐막... 미·독일 등 양해각서 체결

한국전력은 6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린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빅스포(BIXPO-2-4일) 2016'이 11억2000만달러(약 1조280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클린 에너지, 그리퍼워"를 주제로 열린 올해 빅스포에는 제너럴일렉트릭(GE),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170여 개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520개 전시와 21개 국제 콘퍼런스 가 진행됐다. 전 세계 43개국에서 2400여명의 전력산업 관계자가 참가하는 등 총관람객 수는 5만2000여명에 달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BIXPO는 한전이 본사를 나주로 이전한 이후 지역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빛가람 에너지벨리를 널리 알리고 에너지 분야 신기술의 최신 동향과 전략을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행사 기간 국내외 기업 간 153건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돼 11억20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한전은 미국, 독일, 캐나다 등과 13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10개 기업과는 '부식 모니터링 센터 및 프로그램' 등 여러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빅스포 행사의 하나로 마련된 '에너지 벨리 채용박람회'에서는 에너지 공기업 10개사와 GE코리아, 알프스 등 외국기업, 효성 등 국내 대기업 등 46개사가 참가했다. 6000여명의 취업준비생이 상담과 면접에 참여했으며 150명 이상이 심층면접 등을 통해 채용될 예정이다.

국제 발명대전에서는 '해저케이블 유지보수를 위한 센서와 관리법'(중앙대 등)이 대학생 공모 분야 금상을 받았다.

조환익 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에너지 신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기업 간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다졌다"며 "국내의 우수 전력기업이 해외시장으로 널리 진출하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현대제철, 단조사업 순천공장 일원화

2천억 투자...제강·가공 등 일괄시스템 갖춰

현대제철이 단조사업을 순천공장으로 일원화하면서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안정화를 통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도 예상된다.

현대제철은 11월부터 인천공장에 있는 50t 전기로를 폐쇄하고, 순천공장을 중심으로 단조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35년간 현대제철 단조사업을 이끌었던 인천공장은 단조 제품 생산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단조는 녹인 철 덩어리를 두들겨 제품을 만드는 기법으로 완성된 제품은 주로 선박에 들어간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6월 SPP울촌에너지를 인수하면서 단조 생산을 순천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SPP울촌에너지는 잉곳만 생산하는 인천공장과 달리 제강에서 단조, 가공까지 상하공정 일괄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잉곳은 금속이나 합금을 한 번 녹인 뒤 주형에 흘려 넣어 굳힌 쇳덩어리를 말한다. 잉곳을 가열해 해머 등으로 두들겨 단조제품을 만든다.

순천에서 단조사업이 안정화 될 경우 현대제철의 기존 주력 사업과 시너지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대제철의 포트

폴리오가 확대됨과 동시에 후판과 패키지가 활발해질 수 있다"며 "새로운 사업과 시너지를 순차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4월부터 순천 단조공장을 가동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확대된 시설을 갖추고 단강, 단조 라인의 시운전을 거쳐 하반기에 정상 가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투자 규모는 2000억원이다. 투자가 완료되면 연간 생산량은 잉곳(단강)은 내년 25만7000t, 2018년 33만9000t, 단조는 내년 12만t, 2018년 17만2000t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7	8	10	19	21	31	20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115,107,742	1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29,907,105	87
3 5개 숫자 일치						1,260,620	2,064
4 4개 숫자 일치						50,000	99,271
5 3개 숫자 일치						5,000	1,600,13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5년 이상 불로 가열해도 불이 사들고
먼지 들어가지 않는 신탈 동경안 합지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방수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터너 디자인이 잔 멘디나외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